

집중 분석! 밀가루 산업의 어제와 오늘

'제분공업통계연감'을 통해 본 밀소비 현황

■ 자료 출처 : 2001 제분공업통계연감 (한국제분공업협회) ■ 정리 및 분석 : 임희정 lim@mbakery.co.kr

한국 제분공업협회는 지난 8월 국내 밀가루에 대한 통계 자료인 '제분공업통계연감'을 발간했다.

이에 국내 밀 도입상황, 밀가루 소비, 국내 제분시설능력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해 봄으로써 국내 제분산업의 현재를 조망해본다.

1. 지난 40년간 밀수입 현황

국내에 밀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6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밀 도입은 무상원조의 형태를 띠었으며, 소비량도 25만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부의 분식 장려 운동과 식생활의 변화로 밀의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국내 밀 도입상황을 살펴보면 61년도에는 25만톤이었으나 67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135%로 크게 증가했다. 67년에는 밀 수입량이 최초로 100만톤을 초과하고 20년 후인 86년도에는 214만톤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장세는 90년대에도 꾸준히 이어져 작년에 250만톤의 밀이 수입됐다(표1 참조).

<표 1> 연도별 국내 밀 도입량

연도	도입량(ton)	증감률(%)	연도	도입량(ton)	증감률(%)
90	2,092,855	+0.1	96	2,276,605	7.3
91	2,091,992	0	97	2,325,819	2.2
92	2,080,520	-0.5	98	2,146,012	-7.7
93	2,048,834	-1.5	99	2,385,198	11.1
94	2,128,090	3.9	00	2,505,169	5.0
95	2,121,430	-0.3			

*증감률은 전년도 대비 도입실적의 증감률을 나타냄.

관련자료를 분석해 보면 61년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밀 도입실적은 10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산술적인 수치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국민 식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원산지 및 국내 제분사 밀 도입 현황

한편 밀가루의 원료인 밀의 원산지별 도입 실적을 보면 61년도부터 84년도까지는 미국산 밀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70~80년대에 걸쳐 한두 차례 호주와 캐나다 등에서 밀을 수입한 적도 있으나 거

<표 2> 원산지별 밀 수입량

(단위 : 톤)

연도	미국	호주	캐나다
90	1,769,308	314,555	8,992
91	1,662,268	376,948	52,776
92	1,516,290	508,462	55,768
93	1,451,187	530,521	67,126
94	1,516,024	560,698	51,368
95	1,452,024	612,705	56,701
96	1,553,010	650,792	72,803
97	1,492,448	736,321	97,050
98	1,296,676	719,366	129,970
99	1,352,968	908,668	123,562
00	1,329,254	1,035,724	140,191

의 대부분 미국산 밀이 주류를 이룬다.

85년부터는 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밀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90년도에는 전체 밀 수입 구성비가 미국 68%, 호주 29%, 캐나다 3%로 미국산 밀 수입은 이전보다 감소된 반면, 호주산 밀 수입은



증가곡선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져 작년에는 미국 53%, 호주 41%, 캐나다 6%로 호주산 밀 수입량이 미국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표2 참조>.

국내 제분사의 밀 도입은 대한제분(주), 동아제분(주), 제일제당(주)을 필두로 19여 개의 국내제분회사가 밀을 수입하고 있다. 70년도에는 대한이 약 22톤(총 도입실적 대비 21%), 동아가 약 18톤(총 도입실적 대비 17%), 제일이 약 10톤(총 도입실적 대비 10%)의 밀을 수입했다. 이 가운데 제일제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여 85년도부터 90년대에 걸쳐 국내제분사의 밀 도입 실적순위가 대한, 제일, 동아 순위로 바뀌었다.

60년대부터 생산 시작해 ... 작년 180여만톤 규모

국내 제분사가 지난 70년 한해동안 생산한 밀가루량을 보면 대한제분 약 19톤, 동아제분 약 17톤, 제일제당 약 9톤 등 국내 총 생산량이 928,443톤에 불과하던 것이 85년에는 2배 규모로 성장해 160톤에 육박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75년도부터 대농제분, 남곡제분 등이 밀가루 생산회사 대열



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해 85년도에는 총 19개의 제분회사가 11개사로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는 72년 9월부터 75년까지 3년여간 지속된 1차 오일 쇼크(Oil Shock)의 영향을 받아 밀 수입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제적 요인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국내 제분사 가운데 1~2개사를 제외한 제분업계 전체가 긴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적자 운영을 피할 수 없었던 몇몇 기업은 만성적인 경영 악화로 인해 도산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83년부터 밀수입 추천권이 농림수산부에서 한국제분공업협회로 이관되고 밀가루 생산 규격과

<표 3> 국내 제분사의 밀가루 도입량

(단위 : M/T)

연도 \ 업체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대한제분(주)	463,126	470,266	473,197	460,793	483,432	488,968	529,200	539,627	486,139	595,903	618,845
동아제분(주)	385,473	330,468	365,894	310,629	330,807	330,807	404,786	413,131	359,799	435,628	444,163
대선제분(주)	121,447	150,658	146,074	145,351	159,502	159,502	150,330	167,798	165,109	153,215	163,519
신한제분(주)	116,263	126,372	118,401	129,479	156,880	156,880	171,796	195,075	181,082	222,451	242,585
한국제분(주)	171,022	195,243	177,523	184,572	206,883	206,883	212,167	212,357	214,554	224,440	223,474
제일제당(주)	523,665	499,848	496,784	527,026	527,997	527,997	549,924	543,331	531,530	582,876	618,555
삼화제분(주)	76,975	72,146	72,332	67,400	89,512	89,512	77,543	83,562	63,495	77,632	83,981
신극동제분(주)	81,982	69,008	63,469	75,465	78,766	78,766	95,901	79,453	58,662	3,850	-
영남제분(주)	75,761	78,354	71,000	78,589	82,115	82,115	84,958	91,485	85,642	89,203	110,047

가격이 자율 경쟁시대로 접어든다. 또한 밀가루 수입이 자유화되는 등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뒤따르면서 90년대부터는 밀가루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한다. 그 결과 작년 국내 밀가루 생산량은 대한제분 44톤, 동아제분 31톤, 제일제당 45톤을 포함해 총 182만 여톤의 생산 규모를 갖추게 된다<표4 참조>.

<표 4> 국내 제분사 밀가루 생산실적 (단위 : 톤)

연도 업체	96	97	98	99	00
대한	378,765	384,508	381,518	442,614	446,567
동아	262,769	280,402	272,739	302,341	312,440
대선	119,438	122,718	126,446	119,407	116,525
신한	140,714	161,124	157,617	176,904	179,236
한국	159,678	162,597	153,864	171,591	174,013
제일	391,809	383,868	387,104	431,325	457,554
삼화	61,216	56,218	51,354	58,183	56,414
신극동	65,021	64,331	51,943	-	-
영남	56,976	69,100	69,788	72,374	78,051
합계	1,636,386	1,684,866	1,652,373	1,774,739	1,820,800

한편, 국내 제분사가 70년도에 판매한 밀가루의 규모는 92만 7,220톤이었다. 71년도에는 16만 4,000여톤 정도가 증가해 약 백만톤 이상이 판매된다. 지난 85년에는 약 161만톤의 판매실적을 이뤘으며, 작년 한해동안의 판매실적은 180만여 톤으로 15년 사이에 거의 증감률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판매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지 않고 정체된 상태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표5 참조>.

II. 밀가루 소비량 및 국내 제분시설 발전 현황

밀가루는 대부분 제면용, 제과용, 제빵용 등 2차 가공식품의 원료로 판매돼 왔다. 1970년대까지는 일반 가정용이 전체 밀가루 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했으나 80년대부터 점차 줄어들어 85년 이후로는 10% 이내로 감소, 90년대 중반까지 전체 판매량이 5%이내에 머문다.

이는 밀가루의 용도별 소비상황을 분석해 볼 때 국민의 식생활이 쌀 위주에서 서구식 식단으로 변화되면서 일반 가정용보다 요식업소용, 제과제빵용 등 2차 가공업용의 밀가루 소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표 6참조>. 실제 소포장용으로 출하되는 밀가루는 일반 가정용으로 사용되며, 20kg의 대포장용 밀가루는 실수요처에 해당되는 곳에 판매된다. 때문에 전체 판매량에서 일반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할 수 밖에 없다.

국내 밀가루 제분시설 능력을 볼 때 65년도 경의 제분시설은 하루 생산능력이 43천(BBL)이며 연간 밀 가공능력이 1,420만톤 정도의 수준이었다. 또 밀 가공실적은 연간 23~40만톤 수준에 불과하다. 당시 밀가루 생산능력이 저조한 이유는 미국의 식량원조에 의한 밀 수입량이 감소해 가동률이 30% 미만으로 저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60년대 중반이후 가동률이 점차 향상되기 시작해 70년대 이후부터는 70%에 이른다. 이는 당시 국내 농작물의 흉년, 정부의 분식장려정책, 미국 소맥협회의 지원 및 업계의 분식장려사업 등의 추진이 잇따르면서 밀가루 소비량이 증가되고 가동률도 점차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표 5> 국내 제분사 밀가루 판매실적 (단위 : 톤)

연도 업체	96	97	98	99	00
대한	374,648	390,948	374,423	439,037	447,022
동아	259,268	287,671	262,935	303,949	310,963
대선	117,796	124,087	122,711	123,280	112,358
신한	139,830	160,998	154,220	167,765	171,986
한국	158,985	165,195	152,512	170,020	173,197
제일	389,280	386,137	384,334	432,871	454,979
삼화	59,696	57,950	50,736	58,455	55,375
신극동	63,124	65,750	53,451	-	-
영남	55,448	70,046	68,470	74,267	77,265
합계	1,618,075	1,708,782	1,623,692	1,769,644	1,803,145

<표 6> 연도 및 용도별 밀가루 소비량

(단위 : %)

용도 \ 연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가정용	4.8	2.8	2.5	3.3	3.3	4.1	9.6	5.9	7.6	7.6	7.6
요식업소용	7.3	7.4	6.3	6.3	7.0	4.7	3.2	3.7	5.4	5.5	5.5
제면용	42.9	48.7	49.3	49.0	49.8	47.5	40.4	39.0	38.4	40.1	40.1
제과용	11.2	12.7	7.9	8.9	9.1	9.7	9.6	9.1	8.3	9.9	9.9
제빵용	13.5	9.6	12.2	11.7	12.1	12.1	11.5	11.9	12.4	11.4	11.4
양조용	7.3	4.8	3.4	3.5	2.7	2.1	2.0	2.7	2.1	1.4	1.4
공업용	4.2	2.8	2.8	2.0	2.7	3.4	2.7	2.5	1.5	1.5	1.5
장유용	3.7	3.7	3.7	3.8	3.0	3.2	3.0	2.8	3.1	3.1	3.1
수출용	-	6.2	6.2	5.6	6.4	7.0	6.6	6.7	8.5	7.2	7.2
기타	5.1	5.7	5.7	5.9	3.9	6.2	11.4	15.7	12.7	12.3	12.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소비량(천 M/T)	1,520	1,447	1,460	1,523	1,551	1,611	1,618	1,709	1,632	1,770	1,770

능력)에서 M/T(무계 단위)으로 바꾸고, 중부(아산)지역에 공장을 1개 신설해 제분공장이 14개로 늘어난다. 그러나 95년도에는 부산소재의 공장 2개가 폐쇄되고 98년도에 공장 1개가 폐쇄되어 현재 국내 제분시설은 공장 11개로 줄어든 상태다.

한편 각 제분회사의 밀가루 1일 생산능력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2년 밀가루의 1일 생산능력은 6만3,053BBL(약 5,549톤)로 제분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975년에는 제분공장 24개중 5개 공장의 시설을 업계가 공동으로 흡수해 82년 말에는 일일 생산 능력이 5만5,029BBL(약 4,843톤)로 떨어진다. 이처럼 제분시설이 흡수, 폐쇄되고 낙후된 기계가 최신기계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밀 가공능력이 연간 2,829만톤에 달하는 등 가동률이 점점 저하된다.

88년도부터 정부는 그 동안 사용하던 밀가루 생산 능력 단위를 BBL(부피단위: 24시간 동안 밀가루 22Kg(=196파운드)짜리 3~4포대를 생산해내는

72년도 말 약 6만3,000BBL가운데 대한제분이 19%(약 만 2,287BBL/ 약1,081톤), 동아제분이 13%(약 8,264BBL/ 약 727톤), 제일제당(주)이 16%(약 1만 253BBL/ 약 902톤)의 1일 생산 능력을 갖춰 3사가 국내 밀가루 1일 생산량의 총 48%에 달하는 양을 생산해냈다.

88년도 이후, 국내 제분사의 총 1일 생산능력은 1만 920M/T(톤)에서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 2001년 6월 현재 하루 생산량 9,655만톤 가운데 대한제분이 30%(2,990M/T)를, 동아제분이 15%(1,540M/T)를, 제일제당이 25%(2,430M/T)로 총 일산능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밀가루 생산은 처음에는 주식을 대체하는 식량차원에서 소비가 이뤄졌으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민의 식생활이 개선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밀가루를 이용한 2차 가공업이 발달하면서 제면류, 제과류, 제빵류 등의 소비가 점점 증가되어 온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 식문화가 날로 서구화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도 밀 수입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

